

이번 학기 우리신문은 학부 이후 취업과 대학원 진학의 갈래에서 연구자의 삶을 선택한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서양 분석철학 연구를 하고 있는 박수영(박사 7기) 씨를 만났다.



지난해 부정투표로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된 이후, 오늘부터 총학생회 보궐선거 투표가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만나 부정투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대비했는지 들어본다.

# 대학주보

## 위조 진료확인서로 공결 신청... 학내 유포 정황도 대학 징계 · 형사처벌도 가능... 처방전 첨부 등 보완 필요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천유정 기자 estherchun0007@khu.ac.kr

【국제】 학생 사이에서 특정 병원의 진료확인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 가능한 파일이 유포되고 있다. 이 파일은 병결 관련 공결 신청에 이미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신문에서 입수한 해당 파일에는 학교 인근 A병원의 기관 및 원장 직인이 새겨져 있어 ▲인적사항 ▲날짜 ▲진료 사유만 입력하면 실제로 병원에서 배부받은 것처럼 쉽게 위조가 가능했다.

A병원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인지한 바 없다며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교수 쪽에서 진료확인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문의할 경우에는 답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병결에 대한 공결 신청은 인포21을 통해 가능하다. 사유 발생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강사의 판단에 따라 출석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교수들은 진료확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예술디자인대학 윤민희(조형예술학) 교수는 "반복적으로 같은 병원의 진료확인서가 제출되면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병원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응용과학대학 일부 수업에서는

교수가 해당 병원의 진료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진위 여부 판단이 어려워 공결 신청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안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박혜진(문학) 교수는 "학생들이 신청하는 병결은 모두 인정하는 편"이라며 "진료확인서를 꼼꼼히 보는 것이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출 서류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는 학문 공동체의 기본적인 신뢰와 정직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진료확인서 위조가 적발될 경우 학생들은 학칙 위반으로 인한 징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국제 학생지원센터 구영준 차장은 "학생이 첨부한 진단서를 위조해 제출한 경우 본교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학칙 제70조(징계) 제1항에 따르면 학생이 학칙 등 본교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된다.

법무법인 좋은생각의 정성주 대표 변호사는 "진료확인서 파일을 허위로 제작하면 사문서위조변조죄

진료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000000-***** (만 0세)
주소	
병명	
통원	20XX년 XX월 XX일 20XX년 XX월 XX일 (X일간)
실통원일자	20XX년 XX월 XX일
상기와 같이 진료 받았음을 확인함. 발행일 : 20XX. XX. XX.	
요양기관명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전화번호	(031) 이브서비스 이비인후과
원장	

우리신문에서 입수한 진료확인서 위조 파일

가 성립할 수 있다"며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제출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진료확인서 위조 파일을 사용하는 일부 학생들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박나우

(프랑스어학 2024)씨는 "학생들 사이에서 진료확인서를 수정해 제출해도 교수들이 잘 모른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몇몇 학생들은 결석 처리를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용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의료기관 관계자는 진료확인서 양식이 위조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영통에 위치한 김춘동이비인후과의 한 간호사는 "진료확인서는 비교적 위조가 용이한 서류"라며 "처방전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위조를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후마 한유희(문화콘텐츠학) 교수는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뤄질 경우 교수가 학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장민환(천문학) 교수는 "학교 측에서 철저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 사태를 모르는 교수들도 있는 만큼 공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성실하게 출석하는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교무처 학사지원팀 측은 "위 사례를 단과대학 및 교강사에게 공유하고 증빙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출석 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캠 보궐선거, 총학생회 루트 선본 당선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국제】 2026학년도 총학생회 단위 보궐선거 연장투표에서 루트 선거운동본부(선본)의 정재우(Postmodern음악학 2021) 정후보와

박서연(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23) 부후보가 당선됐다.

개표는 지난 27일 18시 30분경 학생회관 232호에서 이뤄졌다. 본래 투표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사흘간이었으나, 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26일 총학생회 선거구 투표율이 투표 마

감 시각인 18시 기준 44.48%를 기록하며 개표 요건인 50%를 넘지 못했다. 이에 선거시행세칙 제6장 45조 1항에 따라 총학생회 단위 보궐선거 투표 기간이 하루 연장돼 27일 18시까지 진행됐다. 총학생회 단위 보궐선거 1차 연장투표는 투표 마감 시점

51.04%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개표 요건을 충족했다. 루트 선본은 찬성 4174표(89.26%), 반대 211표(4.51%), 기권 291표(6.22%)로 당선됐다.

정재우(Postmodern음악학 2021) 총학생회장 당선인은 "투표에 참여

해주신 모든 학우 여러분, 관심 가져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가져주신 관심 만큼 열심히 해서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편, 학점지우개 등 내용은 공약들을 모두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서연(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23) 부총학생회장 당선인은 "공약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1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 기획

# 학부연구생 인기... 취업 경쟁이 바꾼 연구실 풍경

## 학생 '스펙 쌓기' vs 교수 '대학원생 유치' 시각 차도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고학년이 되면서 주변 동기들과 스펙을 쌓기 위해 어느 교수님의 학부연구생을 희망하는지 얘기를 자주 나눕니다.” 이번 달부터 학부연구생 생활을 시작한 조영원(전자공학 2022) 씨는 ‘취업 경쟁력 확대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취업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공계열 학생들 사이에서 실무경험을 쌓기 위한 학부연구생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부연구생은 특정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연구실 인턴 형태로 연구를 보조하는 제도다.

### 학부연구생 선호 현상 대표 스펙으로 여겨져

우리학교는 학생 수요에 맞춰 학부연구생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학부생이 연구실과 직접 소통해 참여 기회를 얻고, 급여 수준과 출근 시간 등은 각 연구실의 자율에 맡겨져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제도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혁신사업단은 3년 전부터 ‘대학원 연계 전공 심화 학부 연구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캠 일반대학원은 재작년 동계부터 방학 중 연구실을 경험할 수 있는 ‘방학 학부연구생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본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5주간 연구실을 체험하고 연구를 보조하며 주 50시간 동안 일하며 최저시급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방중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는 ▲24년 동계 90명 ▲25년 하계 98명 ▲25년 동계 142명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학기 중 각 연구실에 지원하는 학부연구생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공과대학 최진환 학장은 “최근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학부연구생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음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학부연구생 제도가 이공계 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한 대표 ‘스펙’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학생들은 취업시장에서 학부연구생 경험을 적극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학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명혜은(물리학



학부연구생 제도 확대 이면에는 학생과 교수의 기대 차이가 존재한다.

2022) 씨는 “이력서나 면접 과정에서도 학부연구생을 수행했던 경험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다”며 “이런 경험이 직무 연관성을 잘 보여주고 기업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수 역시 활발한 연구성과를 위해 학부연구생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부연구생 이경서(원자력공학 2021) 씨는 “최근 연구 과제가 많아지면서 연구실 인력이 부족해 학부연구생을 뽑는 인원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 대학원 vs 취업 스펙 교수와 학생의 동상이몽

취업 불안 속 학부연구생을 선택하는 목적은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연구실에 들어가는 학생도 있지만, 연구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거나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해 지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반해 이공계 교수들은 학부연구생 제도의 의의는 ‘대학원 인재 유치’라 설명이다.

두 차례 학부연구생 생활을 한 A

씨는 “대학원 진학보다는 연구 경험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싶어 신청했지만 석·박사 진학을 권유하는 분위기 속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며 “기대했던 연구 실적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해 중간에 그만두게 됐다”고 말했다.

진로유예를 위해 도피성으로 학부연구생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다. 학부연구생 민승호(원자력공학 2021)씨는 “상담하러 오는 후배 중 진로를 선택하지 못해 무작정 학부연구생을 하고 싶다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단기간에 유의미한 연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 속 학부연구생 제도는 대학원생 유치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소재공학과 최석원(유기재료공학) 교수는 “연구실 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학부연구생들에게 고가 장비 등 대학원생 수준의 투자를 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산업경영공학과 엄주명 학과장 또한 “한정된 재원 내에서 연구비를 할당받는 상황에서 연구 기여도를 고려했을 때 대학원생에게 더 큰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학공학과 배재형(신소재공학) 교수 또한 “짧은 기간 동안 학부연구생이 진정한 연구를 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도의 의의는 결국 대학원 진학에 있다”며 “진학에 뜻이 없는 학생들은 받지 않는 것도 그 이유”라고 말했다.

### 연구 경험과 인재 유치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교수, 학생, 일선 행정실 관계자들은 학부연구생 제도가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혁신사업단 김슬기 팀장은 “학부연구생 제도는 국내 주요 대학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돼왔으나 대학·학과별 운영 방식과 지원 체계가 아직 표준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지원 범위 확대와 방식 개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속으로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다년도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등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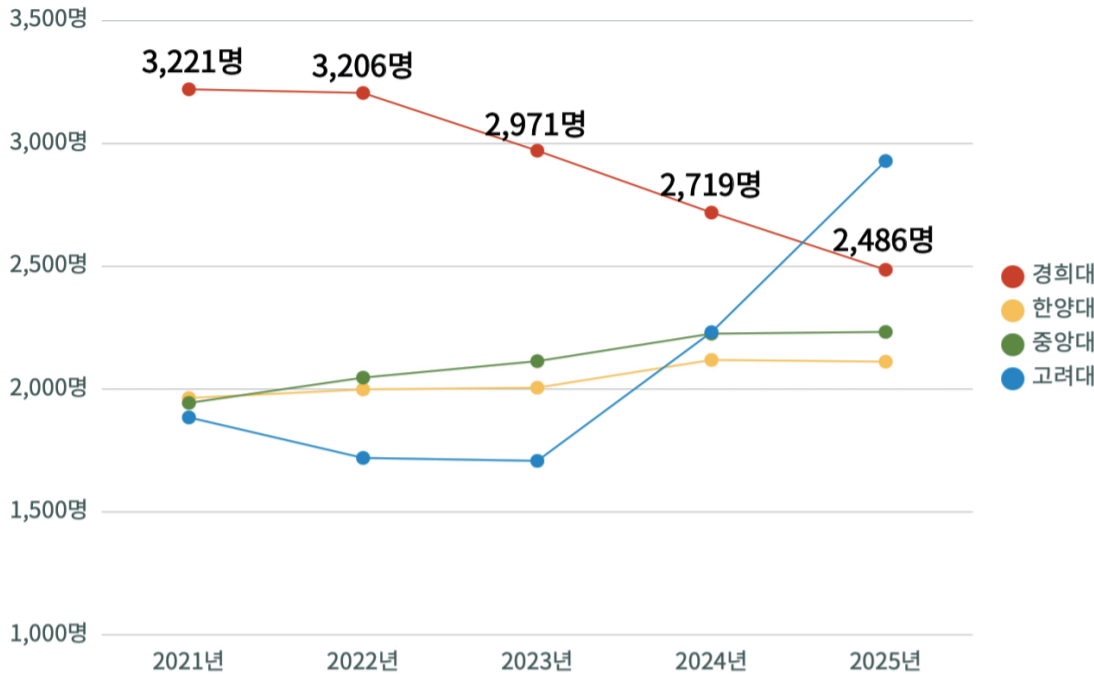
공과대학 최 학장은 “학부연구생

제도는 대학원으로 유입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학업 부담으로 인해)교육 밀도가 낮아질 우려도 있다”며 “학부연구생의 역할과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피드백하는 체계 제정립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업병행에 부담을 느끼는 학부연구생들이 적지 않다. 학부연구생 강민혁(사회기반시스템공학 2021)씨는 “전공수업을 들으면서 학부연구생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빠듯해 시간 배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캠 일반대학원 최문선 팀장은 “학부연구생들에게 일정 학점을 인정 해주는 등 지원확대를 논의한 바 있다”며 “학부연구생 제도는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모두를 고려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인재 유치에 대한 방안으로는 장학금 확대 등의 방법이 거론됐다. 배 교수는 “학부연구생 중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지원을 더욱 확대해주는 방식으로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 학부생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 추이



# 유학생 줄어드는데... 교육 시스템은 제자리 4년새 유학생 735명 감소... 주요 대학 중 최다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 2008년 외국인 지원센터 설립을 계기로 본격적인 유학생 유치에 나선 우리학교는 422명이던 유학생 수를 2021년 3,221명까지 끌어올리며 가파른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견고할 것 같던 국제화 성과도 내실 부족 속에 흔들리고 있다. 최근 4년간 유학생 수는 735명 감소했다. 타 대학들이 많아야 400명 내외의 감소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취재 결과, 유학생 감소 문제는 크게 두 갈래로 살펴볼 수 있다. 입학 이후 학업 지속을 지원하는 '내부 교육 시스템'과 외국 학생을 유치하는 '외부 전략'이다. 이번 1회차에서는 내부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짚어본다.

### 주요 대학 중 감소폭 최대 4년 새 735명 감소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학위과정 외국인학생(유학생) 수는 ▲2021년 3,221명에서 ▲2025년 2,486명으로 4년 새 735명 감소했다. 우리학교 유학생 유치는 중국에 의존해 양적 성장을 이뤘은 만큼, 중국인 유

학생 감소가 이번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중국인 유학생 수는 같은 기간 2,507명에서 1,557명으로 950명 급감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유학생 대비 중국인 비율은 ▲2021년 77%에서 ▲2025년 62.6%로 하락했다.

최근 감소 추세는 그 폭이 가파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년 전 국제처는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유학생 감소 상황을 '위기'로 진단했다. 이후 2024년 6월, 문제 해결을 위해 김종복 대외부총장을 총괄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글로벌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원회(외국인 TF팀)'가 발족됐다. 본부 역시 유학생 감소 추세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당시 외국인 TF팀 글로벌교육과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진해(국어학) 교수는 "활동 당시에도 유학생 수가 1·2위를 기록했던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봤다"며 "유치는 해놓고 아무것도 안하는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의 감소세는 일정 부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TF팀 목표가 유학생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 구축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위원회 활동은 목표 실

현이 안됐다"고 덧붙였다.

4년 사이 유학생 수가 700명 이상 감소한 대학은 서울 주요 10개 대학(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 가운데 우리학교가 유일하다. 같은 기간 성균관대는 369명, 서강대는 148명 감소했고, 나머지 대학들은 유학생 수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렸다. 특히 고려대는 같은 기간 1,885명에서 2,929명으로 1,044명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인 유학생 감소 역시 두드러진다. 최근 2년간 우리학교의 중국인 유학생은 688명 줄어들었다. 감소세를 보인 타 대학도 있었지만, 같은 기간 한양대는 169명, 중앙대는 38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반면 고려대는 75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습 능력 저하 독립적·통합적 교육 부재

2년 전 외국인 TF팀은 내부 교육 시스템의 대표적인 문제로 '심각한 학습 능력 저하'와 '유학생을 위한 독립적·통합적 교육 부재'를 지적했다. 이중 학습 능력 저하는 유학

생의 한국어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학교는 유학생 선발 기준으로 TOPIK(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3급 언어수준은 '사회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초 언어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로 이는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에서 학업수행에 적합한 수준이 아니다.

유학생 우 지아위(WU JIAYU, 미디어학 2024) 씨는 TOPIK 4급임에도 "아직도 수업을 들을 때 AI나 번역기를 꼭 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학생 A씨는 "6급인데도 막 입학했을 때는 수업을 따라가기 너무 힘들었다"며 "3급인 사람이 어떻게 수업을 듣는 건지 상상이 안 간다"고 말했다.

유학생을 위한 독립적·통합적 교육 체계의 부재 역시 문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입학 이후 전공과 교양 단위 어디에도 유학생 대상 교육 시스템이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TOPIK 3급 수준으로 입학한 유학생(전체 유학생 절반 수준)이 1학년 1학기에 필수로 수강하는 '학업역량강화과정(학강)' 역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강은 현재 학업 성취도에 따른 단계적 교육 프로그램

램 부재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 제도 정비 이뤄진 학강 교육시스템 재편 논의 필요

이런 상황에서 자율전공학부(자전)는 기존 글로벌리더·글로벌비즈니스 전공에 더해, 오는 2학기부터 유학생 전용 '열린전공' 모집을 확정했다.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유학생은 1년간 한국어 교육을 이수한 뒤 원하는 학과로 진학하게 된다. 입학 요건을 두지 않는 대신, 졸업 요건은 TOPIK 5급 이상으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학강 역시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에서 자전으로 관리 주체가 이관됐다. 기존에는 후마가 교강사를 채용·배정하고 국제처 글로벌교육지원팀이 행정과 관리를 맡는 이원화 구조로 운영돼 교육과정 설계와 교강사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진섭 자전 행정실장은 "TOPIK 1·2급 수준 유학생을 최소 3급까지 끌어올릴 한국어 교육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한국어 교육을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면 후마 학강도 자전에서 그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겠나 하는 논의를 거쳐 받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학강 관리 체계가 명확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여전히 유학생을 위한 통합 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성은 남아 있다. 타 대학 사례를 살펴보면, 연세대는 외국인 신입생이 글로벌인재대학(GLC)에서 1년간 수학하도록 하고, 이후 전공 선택 또는 진입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 기초 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해 학업 적응을 지원한다. 가천대 역시 외국인 전용 학과를 운영하며, 입학 후 1년간 한국어 교육을 집중 이수하도록 하고 별도의 한국어 시험을 통해 전공 진입을 결정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외국인 전용 학과에 잔류시키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TF팀의 1순위 안은 유학생을 위한 별도 단과대학 설립(가칭 글로벌후마니타스학부)이었다"며 "언어 교육과 전공 진입을 위한 기초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상했었다"고 말했다. 실제 외국인 TF팀 또한 위 두 대학의 사례를 적극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전의 열린전공 모델은 이러한 구상의 일부를 반영한 형태다. 향후 해당 모델의 안정적인 정착 여부에 따라 유학생 통합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음 회차에선 유학생 수 감소에 영향을 준 외부 유치 전략의 허점에 대해 알아본다.

4 2026 보궐선거

# 단독 출마한 메이트 선본, 공청회서 핵심 공약 설명 학점지우개부터 상생학사까지... 실현 가능성도 검증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서울】우리신문과 대학의소리 방송국, 영어신문사 등 학내 언론3사가 함께 주관한 제58대 서울캠 총학생회 보궐선거 후보자 공청회 '2026 경희의 선택'이 지난 25일 개최됐다. 이번 2026 총학생회 선거에는 MATE(메이트) 선거운동본부(선본)가 단독 출마했다.

이에 따라 공청회는 메이트 선본의 정견 발표를 시작으로 키워드 질문 및 답변, 언론사 및 방청객 질의응답, 후보자 최종발언 순으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메이트 선본은 ▲역량 포트폴리오 플랫폼 구축 ▲학점지우개 도입 ▲동대문구 연합 상생학사 설립 ▲마일리지 수강신청 도입 대응 ▲등록금 협상 대응 TF 상시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신창훈(행정학 2021) 정후보는 "학생 자치를 바로 세우고 언제나 학생 곁을 지키는 유능하고 든든한 총학생회가 되겠다"며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현실적인 변화를 만드는 선본, 메이트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정견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키워드 질문 및 답변은 선본의 가치관을 검증하기 위한 순서로, 학내 언론3사에서 사전 선정한 세 가지 가치 키워드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 있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교류'였다. 한수연(Hospitality경영학 2023) 부후보는 현재 타 대학과의 교류가 일회성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동대문구 3개 대학 연합 학술 포럼 추진과 유학생 문화 체험 및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경험을 넓힐 것"이라고 답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미래'였다. 신정후보는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하며 자기 설계 학점제와 해외대학 복수학위제 활성화 공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 번째 키워드 '학생 주권'에 대해 한 부후보는 학생이 제도 결정 과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후보는 "학교의 일방적인 마일리지 수강신청 제도 도입 시도에서 알 수 있듯 학내 제도의 대

상인 학생들이 정작 설계과정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메이트가 말하는 학생주권은 학생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후 언론사 질의가 이어졌다. '당선이 된다면 학내 언론과의 소통 강화에 힘쓸 것이냐'는 질문에 신정후보는 "학내 언론은 학생 자치 기구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 자치 기구는 그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비판의 과정 속에서도 학생 자치 기구는 학내 언론과의 소통의 끈을 놓지 않는 건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후 질의는 공약 실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역량 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공약의 예산 확보와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신정후보는 "학교가 주관해 만드는 플랫폼 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학교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역할"이라며 "이미 담당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캠 총학생회 선본 'route(루트)'와 함께 추진할 공약으로 제시한 학점지우개 도입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루트와의 구체적 논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언론사 질의에 신정후보는 "5학기 이상 수강자에 한해 필수과목을 제외한 6학점 이내 학점 포기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어 학교 측과의 협의과정에서 설정한 목표를 묻는 질의에는 "1차 목표는 제도 도입 그 자체"라며 "다전공 의무화와 재수강 제도 변경으로 높아진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점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대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동대문구 연합 상생학사 설립 추진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신정후보는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한양대 사례를 참고해 LH 등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오는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해당 사안을 의제로 공론화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메이트 선본이 구상하는 재정운용간담회 정례화의 주기와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신정후보는 "학교의 대략적인 등록금 인상분 사용 계획을 토대로 단과대 및 학생



신정후보는 "학생 자치를 바로 세우고 언제나 학생 곁을 지키는 유능하고 든든한 총학생회가 되겠다"며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현실적인 변화를 만드는 선본, 메이트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정견 발표를 마무리했다. (사진=박류빈 기자)

의 의견을 수렴, 인상분 활용에 대해 학생들의 명확한 요구안을 공식화 및 모니터링하겠다"며 구체적인 주기 언급은 피했다.

지난해 2학기 발간된 '인간의 가치 탐색' e북의 지난 한 학기 동안의 판매 비중은 종이책 76%에 비해 전자책 24%(대여 22%, 소장 2%)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낮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교양 과제 e북 도입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신정후보는 "이용률이 24%에 불

과하다고 도입을 지양하는 것은 해당 소수 인원에 대한 수요를 대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희대를 추구한다"며 공약의 취지를 밝혔다.

현장 방청객으로 참석한 하현희(국어국문학 2024) 씨는 장애인 고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교비 회계로 부담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한 선본의 인식과 학교와의 협의

의사를 묻는 질의에 신정후보는 "수치상 장애인 고용 개선을 넘어 장벽없는 생활 환경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학생들과의 소통 창구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총학생회가 살피지 못한 시각에 대해 함께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한 부후보의 "계속되는 대학의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변화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메이트가 집중하겠다"는 최종발언으로 공청회는 마무리됐다.

# 총학생회 보궐선거 시작... QR 투표로 부정 차단 나서 투표소마다 선관위원 상주, 현장 관리체계도 강화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서울】 오늘(30일)부터 사흘간 총학생회 보궐선거가 시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지난해 발생한 부정투표 재발 방지 대책으로 'QR 코드 활용'과 '현장 관리 체계 강화'를 준비했다.

### QR 기반 투표 방식 도입 대리투표 원천 차단

무엇보다 기표소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있다. 지난해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본인인증을 받

은 뒤 NFC 투표카드를 지급받았다. 이후 기표소 내 인식 장치에 카드를 인식하고 설치된 공용 태블릿 PC를 통해 투표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선관위원이 부재할 시 선본원이 타인의 학번을 이용해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고 대리 투표하는 부정행위가 가능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기표소 내부에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QR코드만 비치된다. 유권자들은 각자의 전자기기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투표할 수 있다. 본인인증 절차 역시 강화된다. 유권자들은 학번, 이름과 같은 기본적인 인적 사항 외에도 휴대폰 인증, 온

라인 투표 진행 기기에 대한 인증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황희원(응용영어통번역학 2024) 중선관위원장은 "유권자들이 개별 전자기기로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기에 대리투표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설명했다.

선거 업체는 지난해 선거(제58대) 시 이용했던 '한국전자투표(kevoting)'에서 제57대 선거 당시 이용했던 '오투웹스(O2Webs)'로 변경된다. 황 중선관위원장은 "비용과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 업체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현장 관리 강화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현장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선거 기간 동안 각 기표소에는 선관위원이 상주하며 선본 측 참관인 활동을 감독한다. 황 중선관위원장은 "선본 측 참관인은 투표 독려를 위해 기표소 근처에 배치되는데, 심의 받은 멘트만 할 수 있다"며 "그 외의 멘트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선관위원들을 배치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추가로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선관위원 공백 상황에 대비한 실시간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황 중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들의 일정을 파악했고 선관

위원 상주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관위원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타 단과대의 중선관위·비상대책위원회측 실무위원을 투입해 감독이 끊이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황 중선관위원장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학생 자치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진 상황"이라며 "우리학교 학생 자치가 발전하는 데 이번 선거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 참여 자체가 학생 자치 발전에 기여한다"며 "중선관위 차원에서도 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학우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 총학생회칙 개정 총투표, 투표율 50% 미달로 2차 연장 31일까지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국제】 총학생회칙 개정에 대한 학생총투표가 투표율 50%를 넘지 못해 연장됐다. 연장투표는 오늘(30일), 내일(3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학생총투표는 사흘간 투표 진행 후 26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26일 투표 마감까지 투표율 50%를 넘지 못했다. 이에 지난 27일 하루 동안 국제캠 총학

생회 보궐선거와 함께 1차 연장투표가 시행됐다. 이마저도 투표율 42.28%로 50%를 넘지 못해 투표 기간이 2차 연장됐다. 박병준(국제학 2017) 중앙선거관리위원장(중선관위장) 및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장)은 "총학생회나 기타 학생회 투표가지만 진행하고 있어서 나오는 학생총투표에 대한 투표는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학생총투표는 총학생회칙 제14차 개정안에 대한 투표로 ▲자

유전공학부(자전)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재정운용세칙 관련 총학생회칙 개정안에 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전 학생회는 단과대 학생회에 준하는 지위·권한을 공식 인정받게 되며 선거 시기와 임기를 명시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자전은 지난해 신설돼 학생대표자를 자체 선출했지만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성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중운위 참여가 불가능했다. (관련기사: 자유전공

학부 학생회 확운위 인준돼, 중운위는 참여 불가/대학주보 1740호/2025.04.14.)

박 비대위원장은 관련 학칙 개정에 관해 "학부 특수성을 인정해 중운위 성원으로 인정 가능한 근거 조항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비대위 설립위원회 신설·위원 구성에 대한 회칙이 명시되며 비대위장 호선 절차도 개정된다. 외부 제휴·후원·기부금을 공적 재원으로 명시하는 조항 역시 신설된다.

총학생회칙 개정안 요약	
2025년도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총투표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선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b>자유전공학부 관련 개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위·권한: 단과대학 학생회에 준하는 지위·권한 공식 인정</li> <li>선거 시기: 제1차 3월 보궐선거 기간에 실시 (가중 투표 제외 적용)</li> <li>임기 명시: 임기 확정일까지 다음 재 선거 시까지 연임까지</li> <li>비대위장: 자유전공학부 간담회 개최 예정</li> </ul>
<b>비상대책위원회 신설 관련 개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정위원회 구성: 선거 부안 시 24시간 이내 비대위 설립위원회 구성</li> <li>위원 구성: 제1차 3월 총투표 개표 후 4차 재투표 시 임명 절차 변경</li> <li>비대위장 호선: 설립위원회 구성 후 1주일 이내 1차 재투표 실시 후 1차 재투표 결과에 따라 호선</li> </ul>
<b>재정운용세칙 관련 개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익금 명목 신설: 외부 제휴·후원·기부금 등 공적 재원으로 명시</li> <li>투표권자 범위: 최종 1차 재투표 시 재투표 결과에 따라 재결정</li> <li>명칭 사용 승인: 재투표 결과에 따라 재투표 시 임명 근거 마련</li> </ul>

총학생회칙 개정 총투표 연장투표가 내일까지 진행된다. (사진=투표 안내화면 캡처)



# 대학주보 YOUTUBE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KHUNNEWS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구독하기



6 지역사회

# “외국인은 안 돼요”...유학생 가로막는 주거 장벽 언어·문화 차이로 임대인과 갈등 빈번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유학생 우 지아위(WU JIAYU, 미디어학 2024)씨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자취방 계약 직전 집주인에게 임대를 거부당했다. 임대인들이 외국인 입주자를 기피하면서 유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유학생 입주 기피하는 집주인들 임대인과 유학생의 불편한 동거

국제처에 따르면 현재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3,550여 명(학위·비학위 합산)으로 국내 대학 중 최다 인원이다.

이번 학기 기준 서울캠에는 ▲학부생 1,719명 ▲일반 대학원생 552명이 재학 중이며 국제캠에는 ▲학부생 952명 ▲일반 대학원생 327명이 재학 중이다. 하지만 사회원과 우정원에 수용 가능한 유학생은 평균 300명과 650명으로 전체 유학생 대비 기숙사 수용률은 두 기숙사 평균 약 26.8%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학생들은 집주인의 외국인 입주자 기피 현상으로 자취방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우리학교 유학생 우 지아위씨는 “집을 다 둘러보고 마음에 들어 계약을 진행하려는데 뒤늦게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이 임대를 거절했다”며 당혹감을



임대인들의 외국인 입주 기피 현상 속 유학생들은 자취방을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감추지 못했다. 국제캠 인근 야호공인중개사 이영섭 대표는 집주인들 사이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입주를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현재 임대인 중 대부분이 외국인 세입자를 기피하며 공실이 길어질 때만 마지못해 계약을 진행한다”며 “방을 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임대인들이 완강하게 거절해 중개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 소통 단절부터 문화차이까지 임대인과 외국인 갈등의 골 깊이

임대인들은 유학생 입주를 기피하는 이유로 언어 장벽을 꼽았다.

분리수거 방식이나 생활수칙 등 한국 주거 문화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학교 인근 한 주택의 임대인 이종건 씨는 “번역기를 사용해 생활수칙을 공지해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유학생들이 생활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임대인의 몫”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임대인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영일공인중개사 허정임 중개사는 “건물주들은 대개 고령층이라 스마트폰 번역 앱 사용에 익숙치 않아 유학생과의 소통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학생들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활에 곧바로 적응하기 쉽

지 않다. 유학생 셰이크(Cheikh, 국제학 2026) 씨는 “분리수거 관련 자료를 읽고 생활수칙에 대한 정보도 많이 찾아봤지만 여전히 적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언어장벽은 유학생들의 임대 계약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유학생 제시 샤슨(Jesse Chiasson, 경영학 2022)씨는 “전문 용어로 빠곡한 부동산 계약서는 번역기를 돌려도 이해하기 벅차다”며 “세부 조항을 묻고 싶어도 집주인과 말이 통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거나 아예 계약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화 차이 또한 임대인과의 갈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외국인

주거 서비스 플랫폼 홈스인코리아 측은 “유럽권 학생들은 사람을 집으로 많이 부르는 파티 문화 때문에 집주인과 마찰이 생기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문화권 학생들 역시 잦은 마찰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특정 식습관 문화로 인한 불편을 겪은 사례도 있다. 오케이부동산 관계자는 “향신료를 많이 쓰는 중동이나 인도 지역 학생이 거주했던 방은 계약 종료 후 복도에 밴 냄새 제거와 도배 등 만만치 않은 수리비가 발생해 집주인들이 꺼린다”고 설명했다.

## 갈등에서 공존으로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성

이처럼 임대인과 유학생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학교 인근 빌라 임대인 문병민 씨는 “오랜 시간 굳어진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제 3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거환경학과 김준하(건축학) 교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학교와 지자체가 주거생활 가이드라인, 주거상담 창구 등의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영섭 대표는 유학생 입주자에게 주거 적응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공유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

이 대표는 “가이드라인 제작과 상담 등의 노력으로 유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집주인의 마음을 돌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유학생과 집주인 간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적극적 소통, 유학생들의 문화 이해, 그리고 중재자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이 삼박자가 맞을 때 비로소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KHUNews\_JUBO

##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

# 한눈에 경희를 읽는 법

경희기록관 남기원

경희의유산⑩  
『서울캠퍼스 본관 2』

77년 역사의 경희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누군가에게 경희를 짧은 시간 내에 충실하게 이해시켜야 한다면 본관만 한 곳이 없다. 본관은 경희라는 우주를 축소한 소우주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경희를 제대로 알기 위한 출발점은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이다. '문화세계의 창조'를 이해하면 경희가 걸어온 학문과 평화의 역사, 캠퍼스의 상징과 의미 등이 술술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관에는 '문화세계의 창조' 개념을 이미지로 표현한 부조상이 있다. 물론 '문화세계의 창조'는 설립자 조영식 박사가 책 한 권을 할애해 설명한 간단치 않은 개념이지만, 그 핵심은 본관 페디먼트의

부조상 이미지를 통해 충분히 전달된다.

본관에는 대학의 본령에 대한 언명도 있다. 바로 본관 중앙 출입구 상단 돌에 새겨진 '학문과 양심의 자유'라는 문구다. 대학은 본래 자유롭게 진리를 탐구하는 곳으로서 존재해 왔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선언적 문구를 대학의 중심으로 새김으로써 경희가 순수한 학술의 전당임을 밝히고 있다.

경희가 추구하는 인재상 역시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본관 분수대는 독서하고, 사색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의 세 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여인은 아테네로부터 전승되어 온 교육이념인 지(知), 덕(德), 체(體)를 각각 상징하는데, 경희의 교육목표가 능력 있는 지식인 양성을 넘어 지성, 인격, 육체가 조화를 이룬 전인적 인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경희의 상징 동물인 사자상과 교화(校花) 목련꽃도 본관에서 찾을 수 있으니, 본관은 그야말로 경희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

이다. 그런데, 본관 건물과 그 주변을 둘러보면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조화'의 정신이다.

본관 부조상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중앙을 향해 마주 보는데, 이는 물질문명과 정신문화가 조화를 이뤄야 함을 의미한다. 본관 건물 자체는 서양의 신고전주의 양식을 하고 있지만, 요소요소에는 동양적인 것들이 배치되어 있다.

분수대로 내려가는 계단 중앙 담도(踏道)에 용이 조각되어 있고, 본관 출입구 문에는 봉황이 새겨져 있으며, 페디먼트의 양 모서리돌에는 무궁화가 있는 등 동양과 서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진리 추구의 자유를 선언하는 동시에 지구를 떠받치는 분수대를 배치함으로써 학술과 실천의 조화를 강조한다. 거대하고 웅장한 본관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 이유는 건물이 주변 자연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70년 전, 경희는 주변의 우려와 회의에도 불구하고 본관 건설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당시 경희의



① 본관전경 ② 본관 출입구

시선이 미래가 아닌 현재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우리가 본관의 역사적, 미학적, 상징적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 서울 일부 건물 무석면 전환... 국제캠은 잔류 11곳 철거 작업 이어가지만 전면 제거 시점은 미지수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 우리신문 지난 2022년 교내 석면 관리 현황을 점검해 본 바 있다. (관련기사: 석면 사용 전면금지 7년...우리학교 현황은?/대학주보 1687/2022.06.08.)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우리학교의 석면 관리 실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각 캠퍼스별 현황을 알아봤다.

이달 초 정경대학관에 '석면자재 철거 공사로 인한 5층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공사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됐다. 지난 2015년 석면은 1급 발암 물질로 지정되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현재 우리학교 일부 석면건축물은 사라졌지만 모든 건물을 무석면 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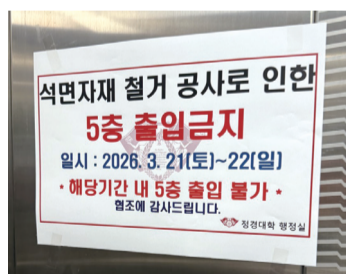
2022년 보도 이후 4년간 서울캠은 지속적인 석면 보수를 거쳤다. 당시 서울캠에 석면이 남아있던 건

물은 22곳(평화의 전당, 생활과학대학관, 국제교육원, 한의대학관, 학생회관, 정경대학관, 제1의학관, 네오르네상스관, 이과대학서관, 중앙도서관, 이과대학동관, 문과대학관, 교수회관, 대학본부, 미술대학관, 세화원, 제2의학관, 청운관, 푸른솔문화관, 호텔관광대학별관)이었다.

서울캠 총무관리처 관리팀에 따르면 현재 석면 제거 공사를 통해 ▲미술대학관 ▲세화원 ▲제2의학관 ▲청운관 ▲푸른솔문화관 ▲호텔관광대학별관 6곳이 무석면 건축물로 바뀌었다. 위해성 등급 역시 하향 조정됐다.

위해성 등급은 석면건축자재를 평가해 낮음, 중간, 높음 3등급으로 구분된다. '낮음'은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중간'은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높음'은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를 의미한다.

2022년 당시 서울캠 건물 중 위해성 평가에서 '중간' 등급을 받은



우리학교 일부 석면건축물은 사라졌지만 모든 건물을 무석면 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경대는 이달 공사를 진행했다. (사진=서라수 기자)

공간은 ▲국제교육원 207호, 309호 ▲호텔관광대학 신관 201호, 301호 ▲구한대의학관 B104호, B208호 ▲제1의학관 337호, 616호, 617호, 802호 ▲네오르네상스관 102호, 304호, 405호, 503호 ▲중앙도서관 407호 ▲미술대학관 300호, 504호 ▲본관 119호였으나 현재는 모두 낮음 등급이다. 총무관리처 관리팀은 "지속적으로 보수를 실시해 등급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서울캠 내

석면 잔류 건물은 16곳(평화의 전당, 생활과학대학관, 국제교육원, 한의대학관, 학생회관, 정경대학관, 제1의학관, 네오르네상스관, 이과대학서관, 중앙도서관, 이과대학동관, 문과대학관, 교수회관, 대학본부)이다.

국제캠 역시 지속적으로 석면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당시 국제캠에 남아있던 석면건축물은 11곳(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교육관, 국제대학관, 전자정보대학관, 도예관, 생명과학대학관, 동서의과학관, 지하주차장, 공학대학관, 우정원, 학생회관)이었다. 국제 총무관리처 관리팀에 따르면 9곳(공학대학관, 동서의과학관, 국제대학관, 멀티미디어교육관, 생명과학대학관, 우정원, 전자정보대학관, 중앙도서관, 학생회관)에서 석면 철거 공사가 2022년 이후 4년간 진행됐다. 다만 완전히 제거해 무석면 건축물로 전환된 건물은 없다.

현재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등록된 국제캠 내 석면 잔류 건물은

11곳(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교육관, 국제대학관, 전자정보대학관, 도예관, 생명과학대학관, 동서의과학관, 지하주차장, 공학대학관, 우정원, 학생회관)이다.

국제캠은 2022년 2건, 2023년 14건, 2024년 11건, 2025년 2건으로 꾸준히 석면철거 공사 및 감리를 진행해 왔다. 국제캠 관리팀은 "교내 환경개선 공사와 더불어 매년 석면 철거 공사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캠 역시 지속적으로 석면을 철거하고 있다. 서울캠 관리팀은 "공사가 예정돼 있고 해당 호실이 석면으로 이뤄졌다면 석면철거를 1순위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석면 철거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시점은 알 수 없다. 서울캠 관리팀은 "교내에 석면 관련 공간이 많이 남아있어 지속적으로 철거 예정"이라면서도 "건물별 상황에 따라 (공사 일정)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곳을 공사할 예정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8 문화



강남 일대 건물 외벽에 성형외과 간판이 밀집해 있다.

(사진=서민주 기자)

# 20대 마음 건강 흔든 외모 비교 문화

## 사진 보정에서 성형 상담까지

서민주 기자 smj13221@khu.ac.kr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문화트렌드 연속 기획〉  
⑩ 외모 스트레스 심화

# 청년·학생 문화 트렌드 열 번째 기획으로, 우리신문은 소위 '외모정병'이라고 불리며 퍼지고 있는 극심한 외모 스트레스 현상을 알아봤다. 자신의 외모에 불만을 갖는 현상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SNS에 외모 콘텐츠가 늘면서 비교에 따른 20대의 마음고생이 심해지고 있다. 사진 보정은 기본이고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위해 병원을 찾는 20대도 늘고 있다. 우리신문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 스트레스를 들어봤다.

### 20대 괴롭히는 '외모정병' "SNS 때문에 비교하게 돼"

'외모정병'.

자신의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결점을 심각하게 괴로워하는 상태를 뜻하는 신조어다. 주로 10대 후반부터 20대 사이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며 SNS 콘텐츠를 통해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씬트렌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외모정병' 블로그 언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4.5% 증가했다.

진채윤(프랑스어학 2024) 씨는 "내 얼굴에 모난 점이 점점 잘 보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SNS를 켜면 너무 예쁘고 마른 사람들만 보여서 조금만 마음이 들기도 한다"며 "필터를 쓰는 걸 알면서도 나와 비교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심해진다"고 말했다.

러시아 유학생 이리나(Irina, 관광학 2025) 씨는 "예전엔 외모 스트레스가 10점 만점에 4점 정도였다면 지금은 10점이라고 느낄 정도"라고 털어놨다. 또한 "한국이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 비해 외모 스트레스가 큰 편인 것 같다"며 "외모 기준이 매우 높고, 그 기준이 계속 변하

는 걸 보면서 한국인들이 외모에 훨씬 더 민감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현상을 두고 국민대 사회학과 최항섭(사회학) 교수는 "타인에게 평가받는 것에 지나치게 익숙해진 20대가 혹시나 외모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까 불안감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의 20대에 비해 현재 20대가 외모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겪는 이유로는 '외모를 더욱 중시하는 사회로의 변화'와 '외모 역시 개인의 능력으로 인식하는 것'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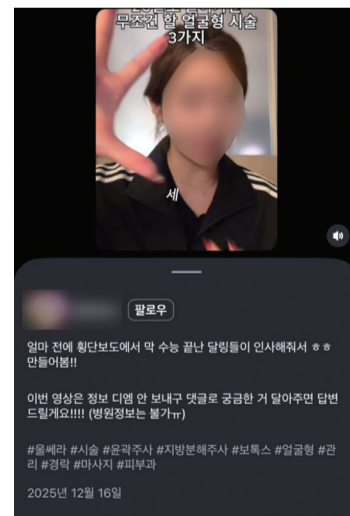
### 성형수술·시술 유행 지금 예약하면 2029년 상담 가능

성형수술과 외모 시술 인기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기자가 인스타그램 '비개방형 코 릴스'로 유명해진 '비엔영의원' 대표원장 예약 신청을 직접 해본 결과 25일 기준 가장 빠른 상담 가능일이 2029년 1월 4일이었다.

극심한 외모정병으로 성형수술에 1,000만원 이상 사용했다는 A씨

(22)는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갑자기 거울을 보고 '여기 왜 이렇게?'하는 생각부터 든다"며 "꾸미는 게 좋아서 성형이나 시술을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불안해지는 강박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달 많은 외모유지비용이 들어가지만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SNS 게시물에 특정 단어를 댓글로 남기면 시술 정보가 자동 메시지로 전송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며 "주변을 봐도 보톡스, 필러를 정기적으로 맞는다"고 말했다.

거액을 들여 병원에 가진 않더라도 SNS 업로드 시 사진 보정은 기본이 됐다. "사진을 과하게 보정하지 않는 편"이라는 이리나 씨는 "점이나 여드름, 잔머리 같은 작은 수정만 하는 정도지만 친구들 중엔 꽤 많이 보정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얼굴을 작게 하거나 눈을 크게 만드는 등 포토샵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 릴스와 같은 SNS 콘텐츠를 보고 병원에 방문하는 20대도 늘고 있다. 더퍼스트피부과의원에서 근무 중인 정희주 씨는 "특정 시술의 효과를 짧고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콘텐츠를 접한 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며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한 "요즘 피부과 고객 절반은 20대"라며 "심지어 20대 때 할 필요가 없는 울세라, 콜라겐 등 피부 탄력 시술도 서슴없이 한다"고 덧붙였다.

### 정상 체중에 식욕억제제 복용 몸에 심각한 교란 생길 수 있어

미용 목적을 위해 정상 체중인데도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12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품 남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9~64세 성인 257명 중 59.5%가 '비만을 진단받지 않았으나 체중을 줄이기 위해'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한다고 답했다. 처음 복용한 나이는 20대가 32.7%로 모든 연령층 중에서 가장 많았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한방병원 이재동(침구학) 교수는 "정상 체중임에도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면 인체에너지 조절 시스템에 심각한 교란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 유행 중인 식욕억제제는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위험성을 다 알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이 교수는 특히 "20대는 신체적인 대사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평생의 건강 기틀을 잡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젊을 때부터 복용하면 약물 남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식단, 운동, 수면 등 생활 습관을 통해 에너지 상태를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외모 불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최 교수는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에서 자유로워지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시대다. 20대 외모 스트레스 심화 추세는 외부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돌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토슈즈와 함께 내려놓은 발레와의 '첫사랑' 제자들과 준비한 마지막 행진



무용학부 학생들이 무대 위에서 꿈을 표현하고 있다.

(사진=무용학부 제공)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 지난 18일 무용학부 김지영(발레) 교수가 주관하는 '김지영의 ONE DAY II'가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열렸다. 2022년 시즌1에 이어 4년 만에 열린 공연을 우리학교 무용학부 학생들과 함께했다. 무대의 주제는 꿈이었다. 발레리나 은퇴 후 교육자가 된 김 교수와 그의 학생들은 저마다의 꿈을 몸짓으로 표현했다. 우리신문은 무대 위에서 꿈을 표현하는 현장을 찾았다.

## 꿈을 향한 학생들의 도약 무대를 채운 아마추어의 진정성

일교차로 쌀쌀했던 저녁, 마포아트센터는 봄비는 관객들로 공연 시작 전부터 열기가 높았다. 특히 단정하게 머리를 올리고 각 학교의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눈에 띄었다. 초청을 받고 참석한 약 60여 명의 무용 꿈나무들은 들뜬 표정으로 공연을 기다렸다. 2학년 박서현 학생은 "존경하던 김지영 교수님과 선배님들의 무대를 직접 볼 수 있어

설렌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공연장의 모든 조명이 꺼진 뒤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이 흐르기 시작했다. 김 교수의 애제자인 초등학교 남주아 학생의 귀여운 무대 이후, 우리학교 무용학부 학생들이 등장했다. 무대 위 설치된 세 개의 발레 바 앞에서 학생들은 몸을 푸는 듯한 기본 동작에 집중했다. 곧이어 졸업생 김은서(무용학 2022) 씨의 독무가 이어졌다. 팔을 머리 위로 들고 한쪽 다리를 곱게 편 채 연속으로 회전하는 모습은 마치 정교한 오르골 속 인형 같았다.

이어 분위기가 급변하며 푸른 배경 속에 검은 의상을 맞춰 입은 학생 12명이 등장했다. 정적 속에서 이어진 단체 안무와 서로를 탐색하듯 펼쳐진 듀엣 무대는 숨 쉬는 법을 잊을 정도로 관객을 집중하게 했다. 주황색 배경으로 바뀐 뒤 김 씨가 두 명의 남학생 사이를 가르며 점프한 순간 객석 곳곳에서 "오!"하는 낮은 감탄사가 나왔다. 중력을 받지 않는 듯한 움직임은 사람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들뜬듯한 학생들의 몸짓을 보며 그들이 느끼는 설렘이 와 닿았다.

공연이 열리기 한 달 전, 인터뷰를 위해 무용학관에서 만난 김 교수에게 들었던 기획의도가 떠올랐다. 김 교수는 "학생들이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부족한 점도 많을 것"이라면서도 "때로는 프로보다 가슴 뜨거운 아마추어가 전하는 진정성이 관객에게 더 큰 울림을 줄 때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의 꿈이 관객들에게 따뜻한 감정으로 다가가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기획의도대로 학생들의 진정성이 관객에게 큰 울림을 전했다.

## 토슈즈 내려놓고 교수의 길로 스승 따라 걷는 꿈의 대물림

학생들의 무대가 끝나고 김 교수가 등장하자 객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김 교수의 연기는 순식간에 공연 속으로 끌어들였다. 원하는 음악이 나오지 않자 톱과 제리의 '제리'처럼 팔짱을 끼고 몸을 뒤로 젖히며 심통을 부리는 연기는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짧은 연기가 끝난 후 무대 뒤 스크린에는 솔직한 인터뷰 영상이 흘러나왔다. 김 교수는 영상에서 "첫

사랑(발레)이 끝난 슬픔이 컸다"며 은퇴 당시의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슬픔도 잠시 김 교수는 이제 우리학교 무용학부관으로 출근해 제자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었다. 김 교수는 "한번은 학생들이 스스로 연습한 동영상 보여줬는데 부족한 점이 많아요 열심히 하는 모습이 울컥했다"며 "자기 자신한테 열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학생들에게 전했다. 이후 무대는 강렬했다. 붉은 상의를 입은 학생들이 단체 안무를 추며 팔을 휘두르자 무대 위에는 붉은 물결이 일렁였다.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고 고뇌하는 듯한 몸짓이 장내를 압도했다. 무대의 우측에서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각자 자신의 꿈을 표현한 뒤 퇴장했다. 독무를 펼친 졸업생 김은서 씨는 "미래에 발레단에 소속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싶다"며 "춤을 본 사람들이 감동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클라이맥스는 김 교수의 은퇴를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홀로 빛에 의존한 화려한 발레복을 벗고 토슈즈까지 내려놓는 모습에서 발레가 김 교수의 인생에서 가졌던 무게감

이 고스란히 전달됐다. 우울과 방황의 시간을 지나 정장을 차려입은 김 교수가 다시 경쾌한 리듬에서 하얀 셔츠를 입은 학생들과 조우했을 때 공연의 감동은 최고조에 달했다. 앞장서는 교수와 그 뒤를 따르는 학생들의 행진은 은퇴한 발레리나가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꿈이 되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무대가 끝나자 뜨거운 환호와 "브라보!"라는 함성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공연 후 로비는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학생들은 지인들이 건넨 꽃다발을 들고 포토존에서 마지막 여운을 기록했다. 무대에 선 김도희(무용학 2023) 씨는 "이곳이 입학 후 처음으로 교수님의 공연에 참여했던 장소"라며 "졸업을 앞둔 지금 다시 같은 무대에 서게 됐다는 점이 남다르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조승연(무용학 2025) 씨는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 준비하는 동안 큰 에너지를 줬다"는 소감을 전했다. 관람객 이지연 씨는 "단순히 기술을 뽐내는 공연이 아니라 무언가에 미쳐서 꿈을 꾸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 10 스포츠

# 가장 앞에서 버티는 프롭, 이젠 팀의 중심으로

## “각자보다 함께” 럭비부 주장 이현준이 꿈꾸는 팀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 경기장에서의 환호 뒤에는 선수들의 혹독한 훈련,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신문은 체육부 선수들을 만나 그 목소리를 담는다. 성적과 기록뿐만 아니라 종목을 향한 열정과 선수로서의 일상,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눈다. 열한 번째 주인공으로 럭비부 주장 이현준(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를 만나봤다.

### 왜소했던 어린 시절 지나 힘 담당 '프롭' 포지션으로

럭비 선수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이현준 선수는 덩치가 좋다. 지금은 183cm 116kg의 거구지만 의외로 중학교 때는 왜소했다고 한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말랐었다는 이 선수는 “뺨이 보이는 게 싫어서 많이 먹으며 덩치를 키웠다”고 회상했다.

그렇게 중1 때 170cm 86kg로 성장해 입단한 럭비부에서 '프롭' 포지션으로 뛰게 됐다.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경기 중 가장 앞에 나서 상대와 몸을 부딪쳐야 하는 자리다. 10년 동안 프롭으로 뛰고 있는 그는 “굵은 일을 도맡아 해야 하지만 팀에서 없어서 안 되는 역할”이라며 자부했다.

남다른 힘을 가진 그는 헬스 '3대 운동'이라고 불리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기록 역시 대단하다. 지금은 발목과 무릎 부상으로 쉬고 있는 운동도 있지만 스쿼트 240kg, 데드리프트 260kg, 벤치프레스 160kg를 들었다. 이 선수는 “보디빌딩이 아니라 럭비 선수니까 지금은 부상 방지를 위해 다칠만한 운동은 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힘이 좋아서 할머니들께서 내가 리어카를 밀어드리면 좋아하신다”며 웃었다. 레슬링 선수였던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종목을 바꿀 시도도 해봤지만 그는 럭비 체질이었다. 그렇게 계속 선택한 럭비만의 재미는 '15명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의 플레이를 성공시켰을 때의 쾌감'이라고 한다.

### 가까스로 입학해 꿈을 이어가다 “남들 공부할 때 운동하는 것뿐”



주장직을 맡고 나서 “신경 쓸 게 많아졌다”는 이 선수는 “럭비부만의 문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사진=이환희 기자)

지금은 럭비부의 간판이지만, 우리학교로 오는 길이 쉽지는 않았다. 고3이었던 이 선수는 최초 합격을 하지 못하고 예비 3번을 받아 럭비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었다. 이 선수는 “이제 운동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하나까 운전면허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럭비를 그만둔다는 생각에 좌절했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무릎 수술로 입원했던 병원 옥상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추가 합격 전화가 왔다. 사라질 뻔했던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순간이었다. “학창 시절 내내 국가대표 한번 해보겠다는 꿈으로 살았다”는 이 선수는 “꿈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준 학교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제 새벽 운동은 힘들지도 않다”는 그는 럭비부의 운동 일정을 소개했다. 학기 중엔 새벽과 오후 팀 운동과 야간 개별 운동을 하고, 방학엔 오전 운동이 추가된다. 고된 운동 일정이지만 이 선수는 “남들은 그 시간에 공부하고 있다”며 “선수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격렬한 종목인 만큼 부상을 피

할 순 없었다. 그의 발목엔 아킬레스건을 제외하고 남은 인대가 없고, 손가락은 부러지거나 꺾이기 일수다. 이 선수는 “경기 중 커버 플레이를 갈 때나 집중을 못 하고 있을 때 많이 다친다”고 말했다. 부상의 두려움에 대해선 열게 웃으며 “그래도 이걸로 먹고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대신했다.

### 주장이라는 책임감 “함께 하는 문화 만들겠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주장을 맡고 있다. 지도자들은 1학년 때부터 운동장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데 적극적이었던 이 선수를 주장으로 낙점했다. 그는 “작년 전국체전 뒤부터 코치님의 무언의 압박이 있었다”며 “주장은 팀의 대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장직을 맡고 나서 “신경 쓸 게 많아졌다”는 이 선수는 “럭비부만의 문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어 “지금까진 단체 종목인데도 각자 운동하기에 바빴다면 이젠 서로 챙겨주고 함께 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럭비부는 다음 달 춘계리그, 여름 대통령기 대회, 연말 전국체육대회를 준비 중이다. 좋은 성적을 노리는 것과 별개로 축구, 농구 등 다른 종목과 달리 U-리그가 없다는 건 분명한 아쉬움이다. 이 선수는 “1년에 치르는 경기 수가 너무 적다”며 “경험을 쌓고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입학 당시 그가 밝혔던 목표는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멋진 선수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그 목표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면서도 “가까워지고는 있는데, 아직 목적지가 좀 멀어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생각하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돌아봤을 때 부끄러운 경기가 없는 1년을 보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졸업 이후의 꿈은 여전히 태극마크다. 이 선수는 “운동선수라면 태극마크는 한 번 달아놔야 하지 않나 싶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은 도대체 어떤 수준의 운동을 하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새 주장과 함께 럭비부는 새로운 승리를 위해 땀 흘리고 있다.

## 농구·배구 U-리그 개막 승리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유진우 기자 jinwooryu@khu.ac.kr

【국제】 농구부와 배구부가 나란히 '2026 KUSF U-리그' 개막전에서 승리했다. 지난 23일 먼저 개막전을 치른 농구부는 동국대 체육관에서 열린 동국대 대전에서 89-81로 승리했다.

농구부는 전반전에서 35-50으로 끌려갔지만 3쿼터 이후 맹추격했다. 4쿼터 7분경 배현식(스포츠지도학 2024) 선수의 3점슛으로 역전에 성공했고, 89-81로 경기를 마쳤다. 4년 만에 거둔 개막전 승리다. 또한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던 동국대 체육관에서 설욕에 성공했다.

농구부 김현국 감독은 “지난 동계훈련이 전반전 이후 역전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줬다”며 “스위칭 수비 상황에서 쉽게 풀리지 않고 자리를 잘 지켜준 덕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장 김수오(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는 “입학 후 처음 이뤄낸 개막전 승리인 만큼 앞으로 기세를 이어가 작년과는 다른 한 해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배구부는 지난 26일 명지대 자연캠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명지대전에서 세트 스코어 3-1로 승리했다. 배구부는 1, 2세트를 각각 30-28, 25-19로 따내며 승기를 잡았지만 3세트를 내줬다. 이후 4세트에서 25-20으로 승리해 명지대를 꺾었다.

19득점으로 활약한 이정민(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는 “수비에 대한 팀원들과의 소통이 잘 통했다”며 “마지막 시즌인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주장 염시원(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는 “이번 시즌엔 꼭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농구부는 오는 31일 16시 우리학교 선승관에서 연세대와, 배구부는 다음달 3일 14시 흥익대 서울캠 체육관에서 흥익대와 맞붙을 예정이다.

## 사설

## 진료확인서 위조, 요령 아닌 범죄

최근 국제캠에서 일부 학생들이 진료확인서를 조작해 병결 신청에 활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우리신문에서 입수한 파일에 따르면 병원 명의로 직인이 포함된 양식에 인적사항만 입력하면 쉽게 위조가 가능했다. 해당 파일은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요령'처럼 공유되며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소비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병원의 명의로 직인을 도용해 문서를 조작하는 것은 '사문서위조', 이를 실제 병결 신청 증빙자료로 사용했다면 '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 '사문서행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범죄다.

그럼에도 학생들 사이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은 찾아볼 수 없다. 에브리타임과 같은 학교 커

뮤니티에서 직접 유포된 정황은 찾을 수 없었지만, 진료확인서 파일은 마치 '죽보'처럼 학생들 사이를 떠돌고 있었다. 해당 파일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진료확인서 위조를 결석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하고 있다.

경각심이 부족한 상태에서 파일이 계속해서 유포되고, 이를 접하는 학생들이 늘어날수록 잘못된 행위는 관행으로 자리잡는다.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신뢰를 전제로 한 제도가 흔들릴 수 있다. 반복되는 일탈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축소해선 안 되는 이유다.

공결 제도는 불가피하게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의 사정을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전제하에 운영된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제도는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증빙서류의 검토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검증 절차는 복잡해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은 결국 전체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질병으로 공결이 필요한 학생들까지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예상 못 할 상황이 아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비단 진료확인서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시험 기간마다 성행하는 죽보 판매,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교재 PDF의 불법 유통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많은 학생들이 이를 '편의'라는 이름 아래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위법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물론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병결 증빙 자료에 대한 검증 매뉴얼을 도입하거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 역시 위조 파일 남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제도도 구성원의 정당한 인식을 대신할 수는 없다. 모든 위반을 감시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구성원 각자의 태도가 제도를 뒷받침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행위에 대한 자각이다. 편의라는 핑계가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어떻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공간이 아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윤리를 배우는 공간이다. 그 출발점은 규율이나 제도보다도 구성원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진료확인서 위조는 '결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 역시 위조 파일 남용을 방지하는

## 세시봉

## 무임승차 끝?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을 한정해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공공·농림·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운영 중이다.

제도가 지적받기 시작한 건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 때문이다. 제도가 도입됐던 1984년엔 노인 인구가 4%였지만, 지난해는 1,050만 명으로 20%를 넘어섰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부담만으로 기록한 손실은 역대 최대인 7,754억 원이다. 적자 해소를 위해 2023년 10월과 2025년 6월에는 각각 150원씩 지하철 요금을 올리기도 했다. 지금처럼 무임승차 제도를 그대로 두고 운임만 올리면 다른 세대의 불만이 생길 것이다.

제도 개편에 의견은 엇갈린다. '너희는 평생 늙지 않을 것 같냐'는 반발과 함께 야당에선 노인 차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심하게 붐비는 출퇴근 지하철 인파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역대 최대의 도시철도 운영 적자와 이를 메우기 위해 두 차례 오른 지하철 요금 역시 근거가 된다.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이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노인들을 차별하고 싶은 게 아니다. 20대든 노인이든 우리 함께 살아가야 할 시민이다. 여러 시각에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를 세대 갈등 프레임에만 가두는 것은 상식적인 접근법이 아니다.

어느 문제나 그렇듯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 이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거나 무료가 아닌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는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 차별이 아닌 시대에 맞는 융통성 있는 변화를 기대한다.

##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외모 불안에서 외모정병까지

## 외모 불안을 유통하는 방식

서민주 기자  
smj13221@khu.ac.kr



“정보 주세요.”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남기면 몇 초 뒤 자동 메시지로 시술 정보가 도착한다. 기자 역시 SNS를 통해 접한 시술 영상을 보고 강남의 한 피부과를 찾은 적이 있다. 영상 속에선 단 한 번의 시술로 얼굴형 전체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체감한 변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내가 본 건 일종의 광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경험은 기자만의 일이 아니다.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외모정병'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사용될 정도로 외모 불안은 친구들 사이에서 일상적인 대화 주제가 됐다.

SNS에서는 성형·시술 전후 비교 영상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타인

의 변화된 모습을 기준 삼아 자신을 평가하게 된다. SNS에서 특정 시술이 유행할 때마다 성형외과 예약 대기 기간은 더욱 길어진다. 실제로 강남의 한 유명 병원은 상담 예약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밀려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정보를 보고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외모 관리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 출발점이 '비교'와 '불안'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SNS를 통해 형성된 기준은 계속해서 변하고 그 기준에 맞추려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 타인에게 있을 때, 그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되는 환경 속에서 필요한 것은 외부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라보는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일지도 모른다. 다만 지금의 상황이 개인의 몫으로만 환원될 문제인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비교를 반복하게 만드는 환경과 기준이 형성되는 구조 역시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



만평 타인과의 비교로 커져가는 불안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권도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앤피

## 12 사람

# 질문에서 시작된 공부, 철학으로 이어진 선택

## ‘성향은 어떻게 판단되나’... 박사 과정 최종 과제

김가빈 기자 woo289504@khu.ac.kr

### 공부하는 사람들② 철학 전공

# 학부 4학년을 마친 학생들은 취업과 대학원 진학의 갈래 앞에 섰다. 이중 대학원 진학은 ‘연구자의 삶’을 택하는 것이다. 이들이 한 명의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앎’은 개인의 성취인 동시에 사회 공공재가 된다. 이번 학기 대학주보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두 번째 주인공은 우리학교 철학과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서양 분석철학 전공 박수영(박사 7기) 씨다.

### 사학과 학부생 철학에 매료되다

박수영 씨에게 철학은 처음부터 계획된 진로는 아니었다. 우리학교 사학과로 입학한 그는 학부 2학년 때 수강한 ‘논리학’ 수업을 계기로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후 다전공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철학 공부를 시작했다.

철학에 매료된 이유는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개념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비롯됐다. 박 씨는 “‘자유’는 매우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데, 정작 자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철학은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도와 지적 흥미를 충족시켜 줬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를 다루는 사상이가 가장 재미있었다”며 “배움을 이어가다 보니 역사적 탐구보다는 철학적 접근 방식을 더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의 학문 여정은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아 나선 도전의 연속이었다. 사학과 학부생이었던 박 씨는 철학을 석사 과정으로 선택했고, 박사 과정에서는 동양철학에서 서양 분석철학으로 또 한 번 세부 전공을 바꿨다.

박 씨는 “옛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와 그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며 “현재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동양 철학적 물음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점이 매력적이었다”고 석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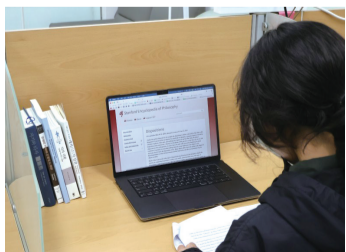


서양 분석철학 전공 박수영(박사 7기) 씨는 “철학은 걸로 보기에 현실과 동떨어진 작업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들을 명확히 하는 작업은 우리의 생각을 더 분명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사진=김가빈 기자)

정에서 동양철학을 전공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연구를 이어가면서 현재 직접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답변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다.

현재의 문제들에 대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질문들을 마주하고 싶어진 것이다. 여러 고민을 하던 중, 박 씨는 현재 지도교수인



박 씨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그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때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사진=김가빈 기자)

최성호 교수를 만나면서 서양 분석 철학으로 전공을 바꾸게 됐다.

### 철학, 추상적인 학문이나 개념 명확히 하는 작업

철학은 종종 추상적인 학문으로 인식되곤 한다. 그러나 박 씨는 “철학은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나 전제에 대해 질문을 하는 학문”이라며 “개념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우리의 생각을 더 분명하게 만들고 실제 판단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철학 연구는 문헌 분석과 논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기존 학자들의 논의를 검토하고, 그 논증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과정이 핵심이다. 박 씨는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지는 논증을 제시하고, 다른 학자들이 제시한 논증을 검토하면서 비판점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철학 작업은 현실과도 연결된다. 박 씨는 “법적 판단에서 ‘동의’와 같은 개념을 이해하려면 그 개념 자체에 대한 철학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철학이 실제 판단과 제도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학은 특히 우리 삶과 밀접한 분야”라며 “최근 빅테크 기업에서도 AI 윤리학과 관련해 철학자들이 AI의 도덕적 지위 여부나 AI가 개입한 결과에 대한 책임과 같은 논의를 다루고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 삶의 중심이 된 공부 ‘함께 하는 공부’도 중요해

지식의 축적은 분명 쉽지 않은 여정이다. 여러 문헌을 읽으며 사고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고, 하나의 아이디어를 설득력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박 씨에게도 ‘공부’란 단순한 지식 습

득을 넘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는 “대학원 진학은 더 본격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공부해 보기로 선택한 것”이라며 “흥미를 느끼는 활동을 삶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학원에서의 공부는 학부 시절과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기보다는, 기존의 학습을 더욱 심화시키는 과정에 가깝다. 박 씨는 “선행 연구를 폭넓게 검토하고, 아이디어를 정교하게 발전시키며, 완성도 높은 글을 작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부 전공에 따라 다양한 언어의 문헌을 다뤄야 한다는 점 역시 대학원 공부의 특징으로 꼽았다.

박 씨는 ‘함께하는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부는 함께 할 때 훨씬 더 즐겁다”며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연구는 개인의 작업인 동시에, 다른 학자들과의 비판적 대화 속에서 발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 배움의 즐거움과 괴로움 학문 지속하는 것이 목표

현재 박 씨는 ‘성향(disposition) 개념 분석’을 주제로 박사 졸업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어떤 대상이 특정한 성향을 갖는다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판단이 어떤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다. 특히 확률적 정보나 설명적 고려가 성향 귀속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박사 학위 취득 이후에는 박사후 연구원 과정에 지원해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학을 통해 연구를 확장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연구원이나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병행하며 학문을 지속하는 것이 그의 목표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그 과정에는 성취와 즐거움뿐 아니라 끊임없는 고민과 괴로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멈추지 않는 이들에게, 배움은 여전히 현재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확장해 나가는 가장 유효한 방식으로 남아 있다.